

## 論介 祠堂의 影幀服飾에 關한 研究

이 순 자  
동신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Portrait of Nongae

Soon-Ja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 Dongshin University  
(2002. 3. 28. 접수: 2002. 7. 30. 채택)

#### ABSTRACT

Nongae was the official Kinye(官妓) who had existed, her portrait was enshrined at an ancestral tablet hall beside Choksukloo.

This portrait of Nongae was a work of a painter, Un Ho-Kim.

In any case, a study on the costume of the portrait of one person must be taken the costume of the perio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 of clothing style in King Sunjo 26(1593) and in her present portrait.

And so, her portrait who was enshrined at the place didn't agree with it's clothing in King Sunjo 26(159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portrait of Nongae took the costume style of the beginning of about 1910. and so this style was different from the style of costume, King Sunjo 26(1593).

The style of costume, King Sunjo 26(1593) :

Jacket: It's jacket was long(near hip) and broad, it's sleeve length was long, it's form was a straight line.

Skirt : It's skirt was very long. It's silhouette was formed a soft line.

The costume of the figure in this picture in wrong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so, the costume of Nongae in the portrait must adjust it in the clothing style of about 1593.

*Key words:* Nongae(論介), the official kinye(官妓), an ancestral tablet hall(祠堂), Choksukloo(叢石樓), portrait (影幀), Sunjo(宣祖).

#### I. 序 論

文化史的 背景의 현상은 각 시대마다 服飾變遷의 要因이 되어 그 시대의 服飾의 樣式을 특징 짓는 것이다.

아렇듯 한 시대의 服飾은 當代의 時代像을 表出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특히 초상화는 實在했던 人物과 當代의 服飾을 內容으로 하는 歷史化 성격의 그림세계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초상화는 역사상 주요 人物의 舊本影幀을 移模한 경우와 근세의 流入文化인 사진을 源本삼아 철저히 服飾을 고증 받아 완성한 초상화이어야 할 것이다.

論介는 晉州牧의 官妓로 實在했던 人物로서 현재 晉州 叢石樓 옆 論介 祠堂에 影幀이 봉안되어 있다.

\* 本 研究는 동신대학교 200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論介의 影幀은 以堂 金殷鎬 화가가 그린 작품이다.

金殷鎬는 많은 影幀 등 역사상의 주요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그 중에서 論介影幀의 服飾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어느 시대 복식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服飾再現은 그 시대의 服飾樣式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 시대에 과거의 服飾을 재현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복식 고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화가가 복식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考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 시대의 복식을 철저히 고증 받지 않고 자신이 생존한 시대의 服飾을 그대로 묘사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 한 예로서 김은호 화가가 그린 것으로, 시대가 서로 다른 人物의 影幀이지만 論介影幀과 春香影幀, 申師任堂影幀 服飾樣式이 유사하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시대적 배경에 부적합한 影幀服飾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의 「胡笳十八拍圖」는 漢 時代에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엮어 그림을 表現한 것이다. 그러나 宋 時代 畫家가 그린 「胡笳十八拍圖」는 漢學者の 딸인 文姬女人과 그의 가족들, 시종들, 가옥 등이 漢 時代 服飾과 가옥이 아닌 宋 時代의 服飾이며, 家屋인 것이다.

이로써 宋 時代 畫家가 생존한 宋 時代의 風物들을 묘사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시대의 배경에 적합하지 않은 服飾 및 가옥 등을 고증 없이 제시하므로써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잘못된 服飾 및 풍물을 후세들에게 인지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祠堂의 影幀에 보이는 服飾은 그 人物의 시대적 배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시대의 服飾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現在 이 論介 祠堂의 影幀이 착용한 服飾樣式은 1910年代 前後의 服飾樣式으로 보이며, 이 影幀은 論介가 舉事當時 宣祖 26年(1593年) 第2次 왜구침입 이전 시대의 服飾樣式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論介 影幀의 服飾에 關한 오류에 대한 시

정연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論介가 舉事했던 시기를 宣祖 26年(1593年)頃으로 추정하여, 이 시기 前後의 妓女服飾과 現 祠堂의 論介影幀의 服飾樣式을 1910年 前後로 추정하므로써 班家婦女의 服飾을 妓女에게도 허용하였을 것이므로 이 시기의 妓女服飾과 班家婦女服飾을 고찰하여 現 祠堂 論介影幀의 服飾이 논개 舉事時 宣祖 26年頃의 服飾樣式과 일치한지를 규명하여 現 祠堂의 論介影幀의 服飾樣式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논개가 舉事했다고 추정되는 朝鮮 時代 宣祖 26年(1593年)頃과 現 論介影幀 服飾樣式이라고 추정되는 1910年代 前後의 妓女服飾 및 班家婦女 服飾樣式 특징을 비교 검토할 것이며, 연구방법은 문헌, 유물, 풍속화 등의 자료를 중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義妓로서 論介의 歷史的인 背景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우리들의 민(民)·군(軍)·관(官)이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 많은 희생 가운데에서 후세(後世)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意味)를 남겨준 죽음이 해전(海戰)의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제2차 진주성(晉州城) 싸움에서 왜장(倭將)을 꺾어내고 죽어간 논개(論介)의 죽음이라 하겠다<sup>1)</sup>.

논개(論介)(?~1593(선조26))는 진주목(晉州牧)의 관기(官妓)로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중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될 때 왜장을 유인하여 순국한 의기(義妓)로서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진주성이 왜적에게 짓밟힐 때 기녀로서 직장을 유인하여 남강(南江)에 빠져 산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구전되어오던 그녀의 순국사실이 문헌이나 금석문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620년경부터라고 추정된다.

사회의 멸시를 받던 기녀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충성심에 감동한 유몽인(柳夢寅)이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채록함으로써 문자화되었던 것이다.

1) 고두영, "논개 출생에 대한 溯考" (서울: 대흥기획, 1997), p.17, (장수문화원편, 「논개의 생애와 충절」)

한편 진주사람들이 그녀의 애국적 행위를 기리고 전하기 위하여, 그녀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그러나 그녀를 추모하는 지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중의 충신·효자·열녀를 뽑아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그녀의 순국사실이 누락되었다. 이는 유교윤리에 쫓아 있던 일부 편집자들이 판기를 정렬(貞烈)로 표창함이 불가하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보수적인 집권사대부들의 편견 때문에 그녀의 애국 충정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 사대부들의 몰이해도 불구하고, 진주성민들은 성이 함락된 날이면 강변에 제단을 차려 그녀의 의혼(義魂)을 위로하는 한편, 국가적인 추모제전이 거행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진주성민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경종 이후의 일이었다. 진주성민들은 절의(節義)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친 그녀의 의로운 행위는 마땅히 정부가 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진주성민들의 요청을 받은 경상우병사 최진한(崔鎭漢)은 1721년(경종 1)에 그녀의 신분으로 의를 위하여 복수를 바친 그녀의 의열에 대한 국가의 포상을 비변사에 건의하였다. 이때 거론된 구체적인 포상방법은 봉작(封爵)을 내려주고 사당(祠堂)을 건립해주는 것이었다. 최진한의 건의를 받은 비변사는 보다 확실한 인증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최진한은 관민합동으로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건립하고 난 다음 그 인본을 제출하여 자손의 급복(給復)에 대한 특전을 허락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비록 진주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논개에 대한 봉작과 전사사액(建祠賜額)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녀의 순국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되었으며, 의기가 논개를 지칭하는 공식호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자손에 대한 급복의 특전이 베풀어진 20여년 뒤에 의혼을 봉안하는 사당이 건립되었다. 1740년(영조 16)경에 경상우병사 남덕하(南德夏)의 노력으로 의기사(義妓祠)가 의암 부근에 세워지고, 논개에 대한 추모제가 매년 국고의 지원을 받아 성대히

치러짐으로써 국가의 공식적인 포상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의기사는 그 뒤 홍화보(洪和輔)·홍백순(洪百淳)·이지연(李止淵) 등이 여러 차례 보수하여 지금까지 축석루(矗石樓)앞에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868년(고종 5)에 진주목사 정현석(鄭顯奭)의 노력으로 매년 6월에 300여 명의 여기가 가무를 곁들여 3일간 치제하는 대규모 추모행사인 '의암별제(義巖別祭)'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의암별제는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의식절차만이 《교방가요(敎坊歌謠)》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sup>2)</sup>.

### Ⅲ. 각 文獻上에 나타난 論介의 生涯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최초의 기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였다. 논개의 순국 현지인 지금의 경남 진주에서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에 무군사(撫軍司)의 관원(官員)이 파견되어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 가족들에게 면역(免役)을 시키고 米太를 지급하였다.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이 무군사 관원이 되어 세자를 따라 삼남(三南)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해인 선조 27년(1594) 갑오(甲午)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로 파견되었는데 이 때 진주성에 들러 논개의 순국 사실을 채록(採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채록된 내용에는 '論介는 淸州의 官妓였다.'라는 말로 시작 출생지와 생년월일에 관한 기록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논개가 단독으로 왜장을 유인하여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한 사실만 기록하였을 뿐이다.

그 뒤 1651년 논개가 순국한지 58년이 지난 孝宗 2년 재상간심관(災傷看審官)인 오두인(吳斗寅)이 쓴 <義巖記>, <陽谷集>을 위시하여 명암(明庵) 정식(鄭植, 1664~1719)의 <의암비기(義巖碑記)>, 서계(西溪) 박태무(朴泰茂, 1677~1756)의 <의암전(義巖傳)>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등의 계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순국의 사실과 역사적인 인식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거사 이전의 출생과 생애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동안 진주에 머물러 있었으며 성의 함락과 동시에 단독결행으로 이전의 삶이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인물대사전 (서울: 중앙 M&B, 1999), p.583.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논개의 출생과 생애에 관하여 언급되지 못한 채 미궁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초로 논개의 출생지에 대하여 '장수(長水)'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순조(純祖) 8년(1800) 간행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妓論介 長水人 公(崔慶會)所聘也, 隨入晉州 及城陷 盛其塗澤誘賊將 二人對舞南江危巖上 兩手抱二賊墮江而死, 後人鐫其巖立碑 和順.’(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인데 최경회가 좋아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로 갔다. 성이 함락되자 곱게 단장을 하고 왜장을 유인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함께 춤을 추다가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떨어져 순국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 비를 새웠다.)

위의 내용은 논개가 순국한 뒤 207년만에 그녀의 출생지가 '장수(長水)'라고 희미하게나마 밝혀지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서 헌종(憲宗) 5년(1839) 간행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卷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論介長水官妓 晉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 論介大宴于巖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抱而同投樓下而死 因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闈於本縣長水. (논개는 장수의 관기였는데 진주병사 최경회가 사랑하였다. 임진년(진주)성이 함락된 뒤 왜장들이 베푸는 축석루 큰 잔치에 논개가 참석 왜장이 크게 취한 틈을 타 왜장을 끌어안고 축석루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관에서는 매년 제사를 올렸으며 장수 본 고향에는 정려가 세워졌다.)

앞의 《호남삼강록》에는 논개가 '장수의 관기'로 기록되어 있고 晉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고향 장수에 그녀의 정려(旌闈)가 있다고 하였다.

논개가 순국한 뒤 279년이 지난 고종 9년(1872)

간행한 《호남읍지(湖南邑誌)》 가운데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 절의편(節義篇) 의기는개조(義妓論介條)에는 義妓論介-任縣內面楓川人 忠毅崔公慶會本縣時所聘也, 崔公以晉州兵使 當壬辰之亂時論介隨去. (의기 논개는 본현의 임현내면 풍천 사람으로 충의공 최경회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갔다.)

위의 기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장수 사람'이라 기록되었던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 출생지가 처음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sup>3)</sup>.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논개의 출생이나 성장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설이 제시되었다. 논개는 전라도 장수 출신이며 양반가문 출신이고, 성은 주씨(朱氏)이며, 최경회(崔慶會) 혹은 황진(黃進)의 애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헌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개의 출신에 대한 지나친 미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sup>4)</sup>.

#### IV. 朝鮮時代 妓女服飾 및 班家婦女服飾의 樣式과 特徵

##### 1. 15~16세기 妓女服飾 및 班家婦女服飾

###### 1) 妓女服飾

기녀는 각종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일을 업(業)으로 삼았던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남성들의 사치 노예라 할 수 있는 기녀는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계급적 분화가 이루어지거나 전쟁 포로(捕虜)의 처우에서 발생한다<sup>5)</sup>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고구려에 이미 유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sup>6)</sup>. 이후 고려시대에 관료체제가 갖추어지면서 官妓가 전국의 관아에 배치되었고 조선시대에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되어서 관기제도만 하여도 1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3) 고두영, 전계서, pp.17~21.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전계서, p.583.

5) 김동욱, "이조기녀사서설", *아세아여성연구* v.5, (1996), p.75.

6) 『후한서』 高句麗 風俗好淫 不以爲愧 有遊女者 夫無常人, 『隋書』 高麗 婦人淫奔 俗多遊女.

7) 김동욱, 전계서, p.81.

조선시대의 경우, 기녀의 수는 관기만도 전 인구의 약 0.5%에 해당했다<sup>7)</sup>고 한다. 그러므로 기녀는 우리 나라 여성사에 있어서 사회학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요소이며, 기녀복식이 여성복식에 미친 영향도 컸을 것이다.

妓女들은 男性 중심적인 朝鮮社會에서 解語花로서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였고, 道德君子들에 의하여 白眼視되기도 하였다. 朝鮮前期의 妓女數는 전 인구의 0.5%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 남성들을 매료시키는 존재였으므로, 妓女들의 생활이 당시의 生活文化 全般에 걸쳐 특히 상류층 여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妓女들이 상대하는 對象이 상류계층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班家婦女子에 버금가는 服飾特惠를 누릴 수 있었으며, 그 시대의 독특한 美意識이 반영된 자유롭고 새로운 服飾을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었다. 「經國大典」에도 妓女에게는 金銀의 首飾과 綾羅의 의복의 허용<sup>8)</sup>이 명시되어 있다.

엄격한 儒敎觀에 의해 많은 자유가 제한되었고, 검소한 服飾着裝이 요구되었던 班家婦女子와 庶民婦女子는 奢侈奴隸로서 천민이었으나 양반의 상대역이었던 기녀들의 복식사치가 허용됨으로서 그 사치스러운 복식생활을 부러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班家婦女子나 庶民婦女子의 그러한 내면욕구가 朝鮮後期에 妓女服飾의 모방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기의 기녀복식은 각종 實錄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기록과 契畵圖에 그려진 기녀의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祖 3년 6월에 내린 金銀禁止令<sup>9)</sup>에 내외명부와 더불어 머리장식에 금은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太宗 18년 7월 왕은 그 당시까지 鬪才들이 紅色을 입고 있었는데 娼妓服으로 흑색을 입도록 議政府에 命하였다<sup>10)</sup>.

세종실록에는 娼妓가 灰色을 입었다는 이유로 舞隊의 책임자인 黃滉이 義禁府에 구금되었는데 그것은 원래 黑色長衫을 입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기록<sup>11)</sup>이 있다.

세종 23년 11월 議政府 啓示 가운데 婦女子의 服에는 홀로 定制가 없어 비록 娼妓賤類도 綾緞을 입고 있다<sup>12)</sup>.

세종 31년 禁制에는 양반부녀 및 女妓외에는 紗羅綾緞 및 靴를 사용하지 못한다<sup>13)</sup>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 23년의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녀들이 비단옷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종 31년 금제에서는 기녀들에게 사라능단과 가죽신까지 허용하였다.

以上の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 연화 때 娼妓들의 服色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연회에 참석할 때 妓女는 長衫을 착용할 수 있었고 衣料로는 紗羅綾緞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금은 장식도 가능하였고 가죽신도 신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기녀복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契畵圖는 세종때의 인물 申叔舟의 막내동생 申末舟(1429~1508)의 고희(古稀)를 맞아 결성한 契畵를 그린 것이다<sup>14)</sup>.

契畵圖에 나타난 妓女들은 모두 6명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음식을 나르거나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머리모양은 정수리에 둥글게 머리를 얹고 또 머리가 어깨까지 늘어져 둥글게 되어 있다. 머리가 어깨까지 닿게 늘어져 둥글게 되어있는 머리모양은 6명이 동일한데 어떠한 형태로 빚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머리띠로 장식한 妓女의 모습도 보인다.

服飾은 裳위에 上衣을 입고 있다. 上衣은 길이가 둔부까지 완전히 덮을 정도이고 길쭉하고 너그러운 소매에 싹이 달려 있고 깃은 조분하게 놓여있다. 깃은 기녀이기 때문에 깃 여밈이 단정하기보다는 부드럽

8) 「經國大典」 권 5, 刑典禁制.

9) 命婦首飾 女妓首飾外 器血及刷鑽泥金銀禁.

10) 태종실록 V34, 2張 A. 宴亭娼妓 衣服用黑色 以前呈才服紅色也.

11) 세종실록 28 正朝 VII 2張 A. 因舞隊黃滉干義禁府 舊禮內宴時 娼妓等皆着黑色長衫 元日內宴着灰色故因之.

12) 세종실록 V.94 (1)表. 婦人之服 獨無定制 故雖娼妓賤類皆綾緞.

13) 전제서, 兩班婦女及女妓外 勿用紗羅綾緞靴.

14) 주간여성 (서울: 한국일보사, 1990. 4), pp.106~109.

럽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이다. 여밈은 짧고 짧은 고름이 달려있을 것이며 띠는 보이지 않는다. 上衣는 것이나 끝동이 異色인 것은 보이지 않고 모두 같은 색이다. 6명의 妓女 중 한사람만이 양옆이 터진 上衣를 입고 있다.

裳은 모두 같은 구조로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이며 넓고 풍성한 맵시이다. 치마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입고 있는 妓女만이 치마의 여밈이 오른쪽쪽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기녀들의 치마 여밈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한 기녀는 홍색의 띠가 한쪽만 보이는데 끝에는 장식적인 異色으로 되어 있고 둥근장식을 달고 있다. 또 다른 기녀는 다홍치마를 입고 있는데 치마색의 두 가닥 끈이 늘어져 있다.

계회도의 기녀 6명이 입고 있는 옷의 색상을 보면, 상의는 녹색이 3, 황색이 2, 청색이 1이고, 상의 안의 녹색이 2, 홍색이 4 이었다. 치마의 색은 녹색이



<그림 1-1> 申末舟 右側 음식을 시중드는 女人  
(申末舟 契會圖 部分)  
(출처: 유희경, "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  
- 申末舟 契會圖를 中心으로, 『韓國服飾』  
제10호(1992) p.10)

1, 홍색이 1, 황색이 1, 담홍색이 2이었다.

옷감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의 부드러운 흐름선이나, 앉았을 때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것, 그리고 저고리가 모두 앞이 벌어지고 안감이 엇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드러운 紬라고 생각된다<sup>15)</sup>(그림 2-1, 2).

戶曹郎官契繪圖는 1550年頃 作者未詳의 契會圖이다. 이 그림에 보이는 女人들은 전면, 옆면을 향해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복식의 전면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出土服飾과 同年代(1550년경)의 것으로 여자들은 草綠과 紫의 上衣類를 입고 있어 宣祖 2妃 疉습의대와 같으며 치마도 紅·藍·黃色으로 되어 있다. 腋間은 모두 紅色으로 되어 있으며 동정과 衿袖가 白色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고리의 길이가 중간 길이로써 腋尔只(肩丁只)저고리와 유사한 모양임이 확인되고 있다<sup>16)</sup>.

## 2) 班家婦女服飾

① 초기: 제2대 정종의 부마 박인의 5대 손부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수의(1560년대)<sup>17)</sup>(그림 2)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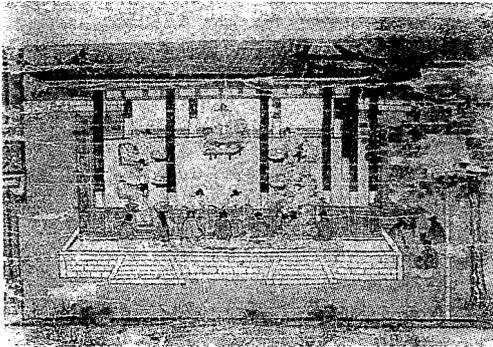


<그림 1-2> 床 앞에서 음식을 나르는 女人  
(申末舟 契會圖 部分)  
(출처: 유희경, 『韓國服飾』 제10호,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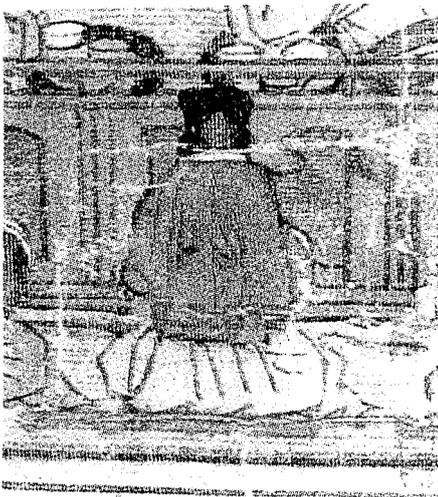
15) 유희경, "15세기 복식의 양식과 특성", 한국복식, 제10호(서울: 단대 출판부, 1992), pp.8~9.

16) 박성실, 전계서, p.455.

17) 1966년 3월 21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영리에서 발굴되었으며, 여기에서 나온 수의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2-1> 戶曹郎官契會圖(1550年代)  
(출처: 중앙일보편집부편(1993), 『韓國의 美 19』, p.21)



<그림 2-2> 앉아있는 女人(戶曹郎官契會圖부분)  
(출처: 『韓國의 美 19』, p.21)

데, 이 저고리의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저고리 길이가 길며, 따라서 옆이 아래로 퍼져 지금의 두루마기 무와 같이 결마기가 달려있다.
- 소매는 통수로 화장이 매우 길고 배래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수구에는 넓은 끝동이 달려 있다.
- 깃은 결깃과 안깃이 모두 지금의 안깃 형태와 똑같이 되어 있어 이채롭다.

- 섶 모양도 안섶처럼 달려 있는데 섶 아래가 위에 비해 상당히 넓어서 많이 여미어지게 되어 있다.
- 도련은 마치 당의와 같이 곡선이 매우 둥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 볼 때 깃·끝동·섶·결대가 모두 동일한 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고리 색과 이색으로 되어 있음은 삼희장저고리와 그 제도가 비슷하다 하겠는데, 다만 지금의 것과 다른 것은 섶의 색까지 저고리 색과 이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름이 없는데 이는 없어진 것이라 생각되며 그 색은 아마도 깃과 같은 색이었으리라 생각된다<sup>18)</sup>.

이 누비저고리의 실측치수는 화장 60cm, 동길이 66cm, 깃 8cm, 동정 5.7cm, 품 51.5cm이다<sup>19)</sup>.

② 중기(1): 광해군비(光海君妃) 中宮柳氏(1575~1641, 재위 1608~1623)의 홍색 삼아(저고리)(圖 7)가 있으니 홍색 명주에 흰 명주안을 넣은 이 삼아는 옆이 트이고 소매가 길고 깃이 목판깃이면서 넓은데 당의와 비슷한 치수로 보아 상시 옷옷으로 착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홍색 삼아 이면서도 깃과 고름만은 자주로 되어 있는 바, 그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 동길이가 몹시 길어 허리 밑까지 내려올 정도이다.
- 화장은 손등을 덮을 만큼 길며 직배래를 이루어 폭넓은 직통수이다.
- 깃은 지금 저고리 깃의 2배 정도, 섶은 5배 정도나 넓으며, 깃 모양은 모가 나 있다.
- 안고름과 겹고름이 있는데, 가늘고 짧으며 크기가 같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임진왜란 때 왜병에게 회롱당하는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열녀도의 崔氏(그림 8-2)나 薛氏의 옷차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고리 길이와 화장 길이가 비슷하고 배래선 모양도 같다. 그리고 선조 40년(1607) 경수연 도첩에 보이는 경수연을 받는 여인의 저고리에서도 유물과 같은 깃모양과 넓은 동정과 부리를 볼 수 있으

18)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98), p.285

19) 국립민속박물관, 『원주벌씨 출토유물 기증전』(2000), p.64

며, 또한 같은 도첩에서 음불을 지휘하는 듯한 여인의 저고리는 옆이 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도 본 유물과 비슷한 유의 저고리가 아닌가 생각되며, 국말에 볼 수 있었던 당의와 비슷하면서도 모양은 다르다<sup>20)</sup>고 하고 있다.

그런데 中宮柳氏 홍색삼아, 《東國新續三綱行實》 열녀도 崔氏나 薛氏의 服飾, 선조 40년(1607) 경수연 도첩에 보이는 경수연을 받는 女人의 服飾, 1589년 《甘露王圖》의 여자공양자의 服飾들중에 가장 유사한 저고리 형태는 열녀도의 崔氏나 薛氏의 저고리의 형태와 착용모습 또한 甘露王圖(圖 4)의 여자공양자상의 복식이다.

그러므로 1593년 論介 擧事시기의 服飾 특징은 앞에서 제시한 저고리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온 길이와 유연한 치마의 형태의 服飾樣式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여복구조의 기본형을 이루는 저고리·치마는 형태에 있어 다같이 단일적이면서도, 저고리에는 그 모습에 많은 변천이 있었지만 치마 즉 상에는 별로 변동이 없었다.

반인계급에서 상용한 걸치마에 대해 유물을 대조·비교해 가면서 그 형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① 초기: 저고리에서 예시한 바 있는 안동 김씨의 수의 치마가 있다.

(그림 3)의 누비치마(縷緋裳)는 면주(綿紬)에 솜을 두어 2cm 간격으로 누볐다. 허리에는 2개의 끈이 달려 있는데 훼손되어 있다. 이 누비치마의 실측치수는 허리둘레 85cm, 치마길이 81cm이다<sup>21)</sup>.

폭은 12폭으로 362cm인데, 한 폭의 실제 너비는 약 32cm 정도가 아니었는가 추측된다.

이 누비솜씨는 기계로도 도저히 따를 수 없으리만큼 곱고 정교하다. 색은 퇴색되어 있으나 주름 밑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아청색이며, 산동주 같은 명주 종류의 감으로 안팎을 하고 있다. 치마의 형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16세기 중종~선조 연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정왕후 2녀의 손녀인 청주 한씨의 동자포도문이

직금된 스란치마가 있다. 자체에 스란단이 직금되어 있는데 6폭만이 남아 있으며 총 길이가 127cm에 이른다. 이 밖에 5점의 치마들은 솜치마가 주름을 이루고 있으며 겹치마 한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파손된 상태이나 치마 길이가 82~100cm에 이르러 평상용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16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정경麻부인이었던 은진(恩津) 송씨(宋氏:1509~1580)의 치마 5점이 있는데 이 중 겹치마와 솜치마는 홉치마와 길이와 형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 금박이나 금직 등의 장식도 없어도 평상용과 의례용의 구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폭과 길이에서 여유를 보이는 홉치마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의 다프 주름을 잡는 식으로 앞부분을 짧게 하고 양옆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지면에 끌리는 부분을 짧게 하여 치마선이 우아하게 펼쳐지게 된다.

또한 1550년대 전후의 유물로 추정되는 숙부인(淑夫人) 원주(原州) 원씨(元氏)의 치마 4점이 있는데 이 중 홉치마 2점이 처리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은진 송씨 홉치마와 같이 덧주름을 넣어 앞은 짧고 뒤쪽은 길게 되어 있다.

이상의 16세기 유물로 미루어 보아 의례용 치마는 계절을 막론하고 홉치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평상용보다 30cm 전후 길이에 차이를 보인 것은 앞부분을 다양한 덧주름으로 처리하여 보행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여겨지며, 또 2개의 치마를 겹쳐 입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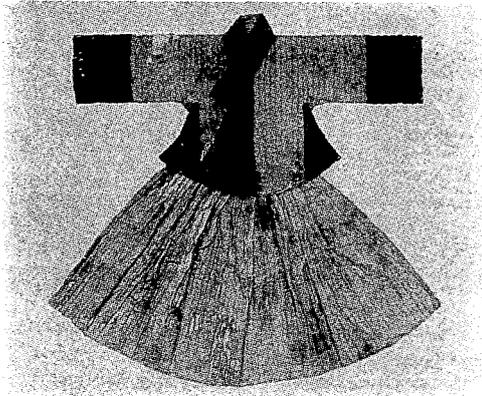
이 같은 치마는 당시 저고리류가 길이가 긴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마는 허리에 맞게 입었으며 '치마허리'라는 명칭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치마 여밈은 오른쪽 여밈으로 나타났으며 주름방향은 현재와 같다. 이와 같이 왼쪽 여밈이 상류층 부녀자의 착장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출토치마 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sup>22)</sup>고 한다. 이 시기 婦女의 머리樣式은 없은머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20) 유희경, 김문자, 전계서, p.286.

21) 국립민속박물관편, 「원주번씨 출토유물 기증전」(2000),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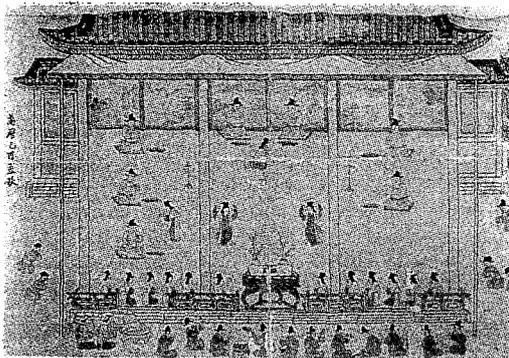
22) 박성실, "조선조 치마 재고(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0호(1996), pp.295~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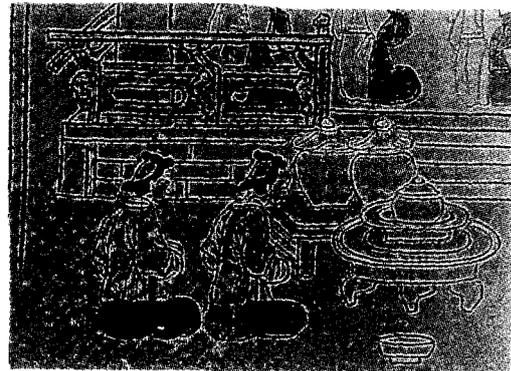
<그림 3> 안동김씨 누비저고리와 누비치마(1560年代)  
(출처: 국립민속박물관편(2000), 원주번씨 출  
토유물 기증전, p.63)



<그림 4-2> 춤추는 女人(宣祖朝香英會圖부분)  
(출처: 『韓國의 美 19』, p.22)



<그림 4-1> 宣祖朝香英會圖(1585年代)  
(출처: 중앙일보편집부편(1993), 『韓國의 美 19』, p.22)



<그림 4-3> 음식 시중드는 두 女人(宣祖朝香英會圖  
부분)  
(출처: 『韓國의 美 19』, p.22)

## 2. 1910년대 前後의 妓女服飾과 班家婦女服飾

### 1) 妓女服飾

기녀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등급이 세분되었으나 구한말시대 전통적인 신분질서가 점차 해체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기녀의 등급도 무너져 남성들을 상대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모두 기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종시대(1863~1907년)를 전후하여 당시 조선사

회,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를 보면 기녀는 크게 세 등급이 있었던 것 같다. 一牌, 二牌, 三牌로 구별되었다<sup>23)</sup>. 개화기에는 기녀의 교육기관인 기생학교가 있었다.

### (1) 1910년 이전의 기녀복식

한일합방기념사진첩<sup>24)</sup>에서 11명, 사진으로 보는

23) 김정미, "우리나라 기녀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 p.38.

24) 조선총독부간, 한일합방기념사진첩(1910), 1910년 한일합방을 기념하여 발행한 사진첩으로 1910년 이전 기녀복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서 97명 모두 108명의 기녀사진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중 80명은 평상복을, 28명은 무복을 입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상복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평상복

① 머리모양

한 명의 기녀만이 없은머리였고 나머지는 모두 쪽진머리이다. 이 시기에는 일부는 없은 머리를 하였으나 대부분 쪽진머리를 하였다.

② 저고리

저고리 길이는 모두 길이가 매우 짧고, 진동과 품이 몸에 꼭 맞는 저고리를 입고 있다. 치마 말기가 보이게도 입고, 끈을 앞으로 매어 늘이고 있다. 깃, 고름, 끝동에 회장을 댄 것, 끝동에만 회장을 댄 것, 민저고리 등을 착용하였다.

③ 치마

치마는 모두 폭이 넓고 땅에 닿을 정도로 길이가 길다. 그러나 발목이 보일 정도로 길이가 짧은치마를 입은 기녀도 있다.

또한 거들치마를 입은 기녀도 있었는데 치마의 여밈의 방향은 모두 오른쪽이었다.

④ 마고자

마고자를 입은 기녀도 있었다. 이들이 입고 있는 마고자에는 단추가 없는 것도 있고 사각형의 단추가 1~2개 달려있는 것도 있다. 동정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도 있다. 마고자 길이는 저고리와 같이 매우 짧다. 또는 털을 댄 마고자를 입기도 하였다.

⑤ 두루마기

기녀는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기녀는 모두 아얌을 쓰고 있다.

또한 두루마기와 같으나 털을 댄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여기에 아얌을 쓰고 털을 댄 토시를 하고 신발은 외코신을 신고 있다.

⑥ 장신구

평상복을 입고 있는 기녀 중 접는 부채, 방구 부채를 들기도 하였으며, 장갑을 끼고, 치마 저고리 위에 노리개를 차기도 하였다.

⑦ 신발

외코신을 신고 있었다.

(2) 1910년대의 기녀복식

1910년대는 '조선미인보감'<sup>25)</sup>에 603명, 매일신보에 3명, 모두 606명의 기녀사진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594명은 평상복을, 4명은 무복을 8명은 외국옷을 입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녀복식중 평상복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평상복

① 머리모양

없은머리 또는 팜프도어머리, 대부분 쪽진머리를 하고 있다.

② 저고리

저고리 중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다. 저고리 형태는 민저고리, 반회장 저고리, 고름과 끝동에 회장을 댄 것, 깃과 고름에 회장을 댄 것, 고름과 끝동에 회장을 댄 것, 끝동에만 회장을 댄 것 등 다양하다.

③ 치마

모두 폭이 넓고 길이가 긴치마를 입고 있었다. 거들치마를 입은 기녀도 있었고 치마 여밈의 방향은 오른쪽 여밈이 많았으나 왼쪽여밈도 있었다.

④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그 색은 짙은색, 옅은색이 있었다.

⑤ 수식

머리수건을 두르고 있는 기녀, 없은머리에 떨잠을 꽂았고 부채를 들기도 하였으며, 핸드백을 들고 있기도 했으며, 우산을 많이 들고 있었다.

2) 班家婦女服飾

이 시기의 저고리는 弘濟洞 南씨부인 소장인 여름저고리(實物 12號), 尹伯榮 여사 소장인 모시적삼과 저고리(實物 13, 14號)(그림 31, 32)를 實測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실물 13, 14號에서 뒷길이, 화장, 소매 모양과各部 형태의 극단적인 短小化 경향이 나타나 있다. 뒷폭 39 cm인 實物 14號의 뒷길이 17 cm는 기록적인

25) 靑柳祠太郎, 조선미인보감, 민속원(1984), 이 책은 1918년 7월에 발행한 것으로 조선전도의 미인 604명의 사진과 기계, 이력을 수집하여 조선언문과 한문으로 기술한 책이다

것이다.

② 實物 12號는 各部 형태가 작아지면서도 등길이와 화장이 길어진 예외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저고리를 입은 것이 平安南道 順川지방이라는 증언에 비추어 치수에 지방색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③ 고름넓이는 3~3.5 cm로 그대로이고 깃넓이는 3~3.5 cm, 끝동이 3~3.3 cm로, 同色인 3부분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

④ 實物 13號에서 보는 적삼 모양은 고름이 달려 있고 동정이 없어, 지금의 적삼 모양과 다르다.

## V. 論介 祠堂의 影幀服飾 檢證

### 1. 論介 影幀 畫家의 人的事項

이 論介의 影幀은 以堂 金殷鎬 화가가 그린 작품이다.

김은호(金殷鎬)는 (1892(고종 29)~1979) 한국화가이다. 본관은 상산(商山), 호는 이당(以堂), 초명은 양은(良殷)이다. 1912년 8월 서울의 書畫美術會 畫科에 입학하여 1915년에 畫科過程을 졸업하고, 1917년에는 書科過程도 수료하였다. 그 동안 창덕궁의 下命으로 순종의 반신상 御容을 그렸고, 侍天敎축의 의뢰로 동학의 교조 최계우, 2대 교주 최시형 그리고 당시 시천교를 이끌던 김연국(金演局)의 전신좌상을 제작하였다. 1920년에는 창덕궁 대조전의벽화 <白鶴圖>를 그렸다. 1921년 이후에는 서화협회전람회(약칭 協展)에 계속 출품하였으며, 조선미술전람회(약칭 鮮展) 동양화부에서 입상과 특선을 거듭하였다. 그의 작품은 새로운 표현감각의 세필채색화로 부드럽고 섬세한 필선과 맑고 우아한 채색의 사실적인 美人圖·꽃·새 등의 화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전통형식의 신선도 등에서도 독보적 경지를 펼쳤다. 1924년부터 高麗美術院에서 후진을 지도하다가 1925년 동경에 건너가 3년간 머물면서 동경에서는 당시 가장 권위 있던 제국미술원전람회(약칭 帝展)에 입선하여 주목을 끌었다. 1928년에는 창덕궁 선원전에 봉안된 순종어진(純宗御眞)과 태조·세조의 어진을 奉寫하였다. 1933년에는 서화협회 간사가 되었고,

1936년에는 양화가 박광진(朴廣鎭), 조각가 김복진(金復鎭)과 힘을 합쳐 朝鮮美術院을 설립하고, 후진 양성을 도모하였다. 1937년부터는 조선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위치에 올랐고, 1939년에는 남원 광한루의 春香祠를 위하여 <춘향상>을 그렸다(당시의 그림은 6.25전쟁 때에 소실되었고, 현재 영정은 그 뒤에 다시 그린 것임).

1945년 조국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國展)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수도여자 사범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편, 1950년에 제작한 <李忠武公像>의 모대본좌상(帽帶本坐像)은 순천 忠武祠에, 갑주본입상(甲冑本立像)은 한산도 제승당(制勝堂)에 각각 봉안되었으며, 정부에 의해 공인영정(公認影幀)으로 인정되었다.

그 뒤 長水와 진주 축석루 옆의 論介祠堂에 봉안된 <義妓論介像>, 강릉 烏竹軒의 <신사임당상(申師任堂像)>과 <이이상(李珥像)>, 밀양 영남루(嶺南樓)의 <阿娘像>, 그밖에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영정과, 전주 李英男將軍祠堂의 영정 등 역사상의 주요 인물상을 무수히 제작하였다. 미술창작과 후진양성에 끼친 공로로 1962년 문화훈장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1965년에 3·1문화상, 1968년에 예술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sup>26)</sup>.

이렇듯 김은호는 유명한 화가이다.

### 2. 現在 論介影幀服飾의 樣式特徵

진주 轟石樓옆 祠堂에 봉안된 金殷鎬가 그린 論介影幀服飾의 樣式特徵은 1910年代 前後 服飾樣式일 것으로 추정된다.

前章에서 1910年代 前後의 婦女服飾의 樣式特徵을 살펴본 바, 1910年代 前後의 저고리 특징은 저고리 길이, 화장, 소매형태와 各部 형태의 극단적인 短小化 경향이 나타나 있다. 實物에 있어서 뒷폭 39cm, 뒷길이는 17cm이다.

現在 論介影幀服飾은 저고리 길이가 짧고 소매도 짧으며 소매배래의 형태, 수구의 넓이, 깃의 형태, 또는 머리형태와 치마의 형태 등이 1910年代 前後의 婦女의 服飾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910年代는 畫家 金殷鎬가 활동하기 始作한 시기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전계서, pp.406~407.



〈그림 5〉 甘露王圖(部分)(1589年代)/ 日本奈良國立博物館長

(출처: 文明大(監修), 1984, 『韓國의 美』16 朝鮮文化 서울 中央日報社, 圖,150.)



〈그림 6〉 烈女圖, 薛氏(左), 公양자상(右), (그림 4의 부분, 描寫圖)(1593年代)

(출처: 琴基淑(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연구”, p.38)

인 것이다.

이렇듯 과거의 人物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人物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服飾을 고려하지 않고 畫家가 현존하고 있는 그 시대의 服飾을 묘사한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金殿鎬는 자신이 현존하고 있는 시대의 아름다운 여인상을 그렸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舉事 當時 論介服飾의 樣式特徵

특히 論介가 거사하였던 任亂中の 제 2차 침입(1593년) 前後 시기를 기점으로 15~16세기의 班家 婦女의 服飾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服飾 樣式중 朝鮮時代 1585년경 宣祖朝 耆英會圖(그림 3)에 보이는 女子供養子像의 服飾, 또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중 烈女圖의 崔氏 또는 薛氏의 복식, 宣祖 40년(1607)의 慶壽宴圖帖에서 慶壽宴을 받는 女人의 服飾에서 또한 같은 도첩에서 음률을 지휘하는 듯한 여인의 服飾, 中宮柳氏(宣祖~光海君)의 저고리의 형태에서 論介의 影幀服飾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1589년의 작품인 甘露王圖의 女子供養子像의 服飾과 《東國新續三綱行實圖》중의

薛氏의 복식(그림 6: 左)의 저고리 치마의 형태와 착용모습이 거의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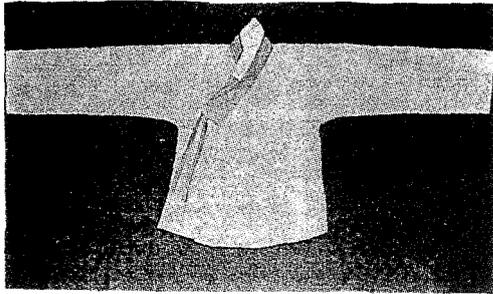
물론 女子供養子像은 그 시기가 1589년으로 任亂 제2차 침입시기 1593년과 거의 근사한 시기이다

그러나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1617년에 삼강행실도를 개찬<sup>27)</sup>한 것이다. 이 시기는 입란 제2차 침입이라는 연대와 차이가 있으나 왜란때 왜병의 행동을 사실대로 그린 것이므로 그림의 내용이 거의 왜구의 침입때의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들의 圖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1589년 作品인 甘露王圖에 등장한 여자공양자像이다. 禮服을 착용했다고 여겨지는 女人들의 복장은 치마와 저고리를 착용한 傳統服飾처럼이며 저고리의 넉넉함과 치마의 유연하며 긴 線의 흐름에서 잔잔한 律動이 감지되는 듯하다. 여인들의 복장은 三綱行實圖의 烈女 薛氏(그림 5: 左)의 복장과 같은 形態감으로 투박하지 않고 유연하며 너그러워 보인다. 소매에 생긴 여유있는 주름과 속옷이 드러나 보이는 소매의 모습에서 기능성과 실용성이 무시된 긴 소매가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양자像의 저고리에 보이는 옆트임도 시각적인 선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긴 소매와 치마 위에 늘어져 있는 긴 치

27) 한영우, 「다시 찾은 우리 역사」(서울: 경세원, 1999), p.270.



<그림 7> 光海君妃 中宮柳氏 엠티임 저고리  
(宣祖 ~ 光海君代(1575~1641. 재위 1608~1623)  
(출처: 유희경, 김문자(1988), 『한국복식문화사』, p.285)



<그림 8-2>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중 열녀도 최씨  
(1593年代)  
(출처: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86)



<그림 8-1> 동국신속 삼강행실도(1617년에 《삼강행  
실도》를 개찬) 중 이라는 여인(1593年代)  
(출처: 한영우(1999),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p. 270)



<그림 9> 論介影幀(現在 진주 論介祠堂에 봉안)  
(출처: 진주사당 논개영정)

마끈도 의복의 실루엣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귀 밑에 늘어진 귀고리의 둥근 모양도 인상적이다.

甘露玉圖에 등장한 인물들이 當時代人들로서 공양자들인 점으로 보아 上衣는 唐衣의 造形으로 보이는 저고리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禮服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28)</sup>.

論介影幀服飾의 再現은 當代 近似한 時代의 服飾 樣式特徵을 통해 構想하여 再現하기 위해서 現在影

幀服飾 樣式特徵과 比較하여 본 결과는 다음 <表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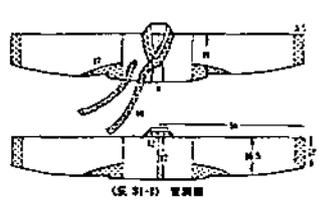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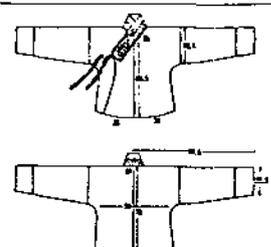
以上으로 現 論介祠堂의 影幀服飾과 舉事 當時의

28) 琴基淑,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88), pp.38~39.

論介服飾을 考察하여 比較해 본 結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現在 論介影幀의 服飾은 1910年代 前後 女性服飾의 特徵으로 머리형태는 쪽진머리로 저고리 길이는

〈표 1〉 現在와 舉事 當時 論介服飾 比較表

影幀服飾年代		現在論介影幀服飾	舉事 當時의 服飾 狀況	
服飾의 特徵				
1. 저고리의 特徵	① 年代	1910年代前後	1593年代前後	
	② 實物	이 시기 저고리는 弘濟洞 南氏부인 소장인 여자저고리(實物 12號), 尹伯英 소장인 모시적삼과 저고리(實物 13, 14號)를 실측한 결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中宮柳氏의 저고리(實物 2號), 紅衫인 이 저고리(圖 7)은 宣祖-光海君代의 저고리 형태를 보인 것으로 실측결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實物 13,14號	가. 뒷길이	· 특히 實物 13, 14號에서 뒷길이는 극단적인 短小化 경향이 나타나 있다. 實物 14號의 뒷길이는 17cm 이다.	· 뒷길이가 몹시 길어 허려 밑에까지 내려온다. 뒷길이는 78cm이다.
		나. 화장	· 實物 13, 14號에서 화장은 극단적인 短小化 경향이 나타나 있다.	· 화장은 손등을 덮을 만큼 길다. 화장 길이는 98.5cm이다.
		다. 소매 형태	· 實物 13, 14號에서 화장은 극단적인 短小化 경향이 나타나 있다.	· 소매형태는 직매래를 이루어 통넓은 直筒袖이다.
		라. 뒷폭	· 뒷폭은 39cm이다.	· 뒷폭은 59cm이다.
		마. 깃넓이, 끝동넓이	· 깃넓이는 3~3.5cm이다. · 끝동은 3~3.3cm이다.	· 깃은 현대 저고리의 2배 정도, 섶은 5배 정도 넓으며, 깃모양은 모가 나 있다.
· 實物 12號	가. 고름넓이	· 고름넓이는 3~3.5cm이다. · 깃, 고름, 끝동이 同色인 3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 크기가 같은 안고름과 짙고름이 있으며, 둘다 가늘고 짧다. · 紅衫이면서도 깃, 고름, 끝동은 자주로 되어 있는 반회장이다. · 옆이 트여있다.	
		· 實物 12號는 각 부 형태가 작아지면서도 등길이와 화장이 길어진 예외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치마의 特徵		· 치마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 치마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3. 저고리, 치마 확장모습		· 머리형태는 쪽진머리로 단정해 보이는 짧은 저고리에 소매의 길이도 약간 짧아졌으며 여유가 가미되었고, 치마의 길이는 길어진 대신 부피감은 감소되었으며 윤곽선은 이완되어 유연하고 부드러운 線을 형성하고 있다.	· 예복을 착용했다고 여겨지는 치마와 저고리를 착용한 전통복식차림이며 저고리의 넉넉함과 치마의 유연하며 긴선의 흐름의 자태를 형성하고 있다.	
實測圖(前後)				

짧고, 소매는 약간의 여유가 가미되었으며, 치마는 길이가 길어진 대신 부피감은 감소되었다. 따라서 윤곽선은 이완되어 유연하며 부드러운 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 論介影幀의 服飾은 1910年代 前後의 服飾樣式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當代 服飾을 유추해본 바, 1593年代 前後 女性 服飾의 特徵으로 1589年 作品인 甘露王圖(그림 4)에 등장한 女性供養子像의 女人의 服飾樣式이다. 禮服인 듯한 傳統服飾 차림이며 저고리 길이가 엉덩이 아래부분까지 길고 소매가 손등을 덮을 정도로 길며 저고리의 넉넉함과 치마의 유연한 線의 흐름이 울동적인 착용모습이다.

그러므로 實在했던 當代의 服飾樣式은 조선시대 15~16세기 婦女服飾樣式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VI. 結 論

論介影幀服飾을 연구함에 있어서 論介는 官妓身分이므로, 妓女服飾과 班家婦女服飾을 함께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임진왜란 중의 충신·효자·열녀를 뽑아 편찬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論介의 순국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이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보이는 烈女圖는 임진왜란 당시의 사실을 그렸던 것이므로 여기에 보이는 崔氏, 薛氏의 服飾樣式을 이 시대에 着用하였던 服飾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1589年頃 作品인 《甘露王圖》에 보이는 女子供養子像중에 女人들의 服飾 또한 1593年代와 近似한 시기이므로 거의 유사한 服飾樣式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現在와 當時의 論介服飾樣式을 비교 검토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추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現在 論介影幀服飾은 첫째, 年代로 보아 1910年代 前後의 服飾樣式이다.

둘째, 임진왜란 제 2차 침입시기인 宣祖 26年(1593)이 論介가 거사하였던 時代로서, 이 時代 前後의 服飾樣式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보이는 崔氏, 薛氏의 服飾과 유사할 것이며, 1589年代 作品인 《甘露王圖》에 보이는 女人들의 服飾樣式 또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사 當時 論介의 服飾은 宣祖 26年(1593年) 前後時期의 服飾이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論介影幀服飾樣式은 現在 論介祠堂에 봉안되어 있는 1910年代 전후의 服飾樣式이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當時 論介服飾으로 추정한 1589년 作品인 甘露王圖에 등장한 女性供養子像의 服飾樣式이 이 시기의 服飾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호 화가가 그린 論介影幀, 春香影幀, 신사임당영정 등의 服飾樣式은 거의 유사한 服飾樣式이다. 이들 影幀人物들은 각각 시대가 다른 人物로서 各人物의 생존하였던 시대의 服飾樣式을 나타낸 그 시대의 服飾을 착용한 영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논개영정복식은 《甘露王圖》 女子供養子像에 보이는 女人들의 服飾樣式,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보이는 崔氏, 薛氏의 服飾이, 적합한 服飾樣式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影幀은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서 박물관에서 소장하여 전시하고, 대체물로서 시대에 적합한 服飾樣式을 影幀服飾으로 제작하여 사당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論介가 舉事했던 宣祖 26年(1593年)頃, 現 祠堂의 論介影幀의 服飾樣式인 1910년 전후, 妓女服飾과 班家婦女服飾을 고찰한 바, 現 祠堂 論介影幀의 服飾이 論介 舉事時 宣祖 26年頃의 服飾樣式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의 崔氏, 薛氏의 服飾樣式, 《甘露王圖》 女子供養子像의 女人들의 服飾樣式이 論介影幀服飾으로 적합한 것으로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論介影幀服飾은 宣祖 26年頃의 복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전들바우 박물관 (1991). 「진주 하씨 묘 출토 문헌과 복식조사 보고서」.
- 고두영 (1997). 「논개 출생에 대한 溯考」, 서울: 대흥기획, p.17, (장수문화원편, 「논개의 생애와 충절」).
- 고복남 (1973). 「우리나라 민속무의 복식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1권 2호.
- 고복남 (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 고복남 (1993).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에 對한 分析研究", 世宗大學校 博士 學位 論文.
- 高永復 (1971). "韓國社會에서의 女性의 地位",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10輯.
- 국립민속박물관편, 「원주번씨 출토유물 기증전」(2000), p.64.
- 권영철 (1991). "閨房歌詞에 나타난 朝鮮時代 女性의 勞動諸相", 효성여대 여성문제 연구 제19집.
- 권오창 (1998).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 권현주 (1993). "조선 후기 관소리계 소설속에 나타난 기녀복식연구", 東亞大學校 碩士學位 논문.
- 국립진주 박물관 (1995). 「임진왜란」, 통천문화사, 1998.
- 琴其淑, 「朝鮮服飾美術」, 열화당.
- 김나형 (1998). "朝鮮後期 妓女服飾이 一般 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 전남대학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논문.
- 김동욱. "이조기녀사서설", 아세아여성연구, 第5輯 淑大 논문집 8.
- 김동욱 (1973). 「증보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 김동욱 (1964). "李朝 中·後期 女性構造",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3輯.
- 김미자 (1989). "개화기 여자복식과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논문집, 제18호.
- 김미자 (1988).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논문집.
- 김부식(1972). 「삼국사기」(신호열역해), 동서문화사.
- 金聖姬, 李基榮 (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 특성과 경제적 가치", 서울대 생활과학연구 제17집.
- 김영주 (1990). 역 「삼국유사」, 일신서적 출판사.
- 김영자 (1989). "韓國服飾美의 研究", 세종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金用瑞 (1970). "文獻上에 나타난 우리나라 服飾의 考察과 近來 젊은 저고리에 對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 金用瑞 (1980). "우리나라 服飾의 歷史的 考察", 목포교대 논문집 제7집.
- 金用淑 (1993). 「韓國女俗史」, 민음사.
- 金用淑 (1970). "李朝 女人像 研究",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9輯.
- 김정미 (1992). "우리나라 기녀(妓女)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金智勇 (1968). "內訓에 비취진 李朝 女人들의 生活相",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7輯.
- 남윤숙 (1989).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렴정권역 (1956). 「악학궤범」, 민족문화사.
- 朴京子 (1983). 「韓國服飾論攷」, 新丘文化社.
- 邊太燮 (1986). 「韓國史通論」, 三英社.
- 백제문화연구원 (1985). 「백제의 복식」.
- 석주선 (1992). 「한국복식사」, 보진재.
- 성경린 (1995). 「한국전통무용」, 일지사.
- 성기영 (1995). "속담과 민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孫京子, 金英淑 (1982). 「韓國服飾資料選集 朝鮮篇 I II III」, 敎文社.
- 신영숙 (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安輝濬 (1993). 「風俗叢」, 韓國의 美19, 中央日報社.
- 梁淑鄉 (1993). "朝鮮後期 一般服飾에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 吳宗根 (1999).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長水史料」, 長水文化院.
- 吳宗根 (1999). 「장수지방 금석문화」, 長水文化院.
- 유희경 (1992). "15세기 복식의 양식과 특성", 한국복식, 제10호, 서울: 단대 출판부, pp.8~9.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 유희경, 김문자 (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 李家源, 譯 (1995). 「홍씨전」, 태학사.
- 이경자 (1983). 「韓國服飾史論」, 일지사.
- 李其白 (1983). 「韓國社新論」, 일조각.
- 이능화 (1986). 「조선여속고」, 민속원.
- 이능화 (1988). 「조선해여화사」, 민속원.
- 이능화 (1990). 金尙德 옮김, 「朝鮮女俗考」, 東文選.
- 이석래 (1984). 「李朝의 여인상」, 을유문화사.
- 李錫浩 옮김 (1991). 「朝鮮歲時記」, 동문선.
- 이승희 (1983). "개화기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중현. 編著, 「改正 增補版 東洋年表」, 探求堂.
- 이주원. "조선시대 기녀복에 관한 연구", 승의논총 8.
- 이주원 (1982). "이조후기 궁중 여무복에 관한 연구 복식", 제6호.
- 李泰浩 (1996). 「조선후기 화화의 사실정신」, 학교재신청.
- 李泰浩 (1996). 「風俗叢 (들)」, 빛깔있는 책들177, 대원사.
- 임동권 (1989). 「여성과 민요」, 집문당.
- 임재영 (1989). "朝鮮後期 服飾發達의 要因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 장인우 (1995). 「우리나라 16, 17세기 출토복식」, 학연문화사.
- 張師助 (1994). 「韓國傳統舞蹈研究」, 一志社.
- 장수문화원 (1997). 「논개의 생애와 증절」, 대흥기획.
- 丁堯燮 (1964). "李朝時代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 地

- 位”,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3輯.
- 鄭源允 (1993). “春香傳에 나타난 人物의 服飾形態에 관한 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 정한숙 (1993). 「논개」, 청아출판사.
- 「조선지리풍속」, 신광사, 1930, (민속원 1987).
- 조정희. “기녀복식고”, 동덕여대는총, 8(5).
- 조선총독부간 (1910). 「한일합방기념사건첩」.
- 조풍연 (1996).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생활과 풍속, 서문당.
- 조효순. “조선시대 기녀복식의 사치와 그 영향”, 明大는 문집, 제15집.
- 조효순 (1981). “朝鮮朝 後期 女性服飾과 改良論議”, 服飾 第4號, 1981.
- 주원효 (1989). “한국장신구의 사치금제연구”, 한양여전문문집, 12.
- 千和淑 (1992). “朝鮮時代 女性の 社會的 地位에 대한 歷史的考察”, 경원대 논문집 제10집.
-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韓國의 服飾」, 三和社.
- 「한국복식」 (1988). 제 6호, 석주선박물관.
- 「한국복식」 (1992). 제10호, 석주선박물관.
- 「漢陽歌」 (1994). 民昌文化社.
- 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1972). 「韓國女性史 I」, 梨大出版部.
- 한국일보사 (1990). 「주간여성」.
- 「韓國의 美 19, 風俗畫」 (1994). 중앙일보사.
- 「韓國의 美 20, 人物畫」 (1994). 중앙일보사.
- 「韓國의 美 21, 人物畫」 (1994). 중앙일보사.
- 한영우 (1999)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99). 한국인물대사전 서울: 중앙 M & B, p.583.
- 韓祐勤, 李泰鎭 (1985).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朝鮮後期篇」, 一志社.
- 홍나영 (1987). “여성 쓰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